

인 사 말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햇볕이 뜨거울수록 신록은 더욱 짙어지고 모든 생명들은 자신이 일구어온 결실을 더욱 여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전통산사들은 자연의 엄숙함을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신사를 주도해온 전통산사이기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는 일은 유구한 문화민족의 자긍심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뜻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사를 주도한 국가와 민족은 한결같이 그들이 가진 정신문화와 그 문화를 담고 있는 현장이 세계적인 선진문화를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통산사를 방문하거나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루게 된 바탕에는 수승한 전통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아일체, 자연과 나와 깨달음이 하나 되는 곳,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곳, 비움과 나눔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한국의 전통산사입니다.

현시대의 인류는 물욕을 벗어나 인성을 찾고,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전통산사들은 지친 현대인들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하는 세계 최고의 도량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나로 결집하여 한국

의 전통 산사가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당당히 등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 산사를 찾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어가는 향기로운 도량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잠재목록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5개 광역단체, 7개 자치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를 총괄하는 헤일스님과 소임자들은 전통산사가 전 세계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뜻 깊은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정신의 삶을 이루며 대자대비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